

광주시 “광역철도 협의 안하면 예타 중지” 전남도 압박

광주-나주 노선 변경 놓고 갈등...광주시 “효천역 경우 안하면 포기” 국토부에 예타 중지 요청 예고...전남도 “선 예타·후 변경” 입장 고수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에 이어 광주-나주 오가는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새로운 효천역 추가 경우를 주장해온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측에 기존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보낸 것이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는 지난 연말부터 수차례 전남도와 나주시 측에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 요청, 경제적 향상 방안 마련 용역 추진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이번 공문을 통해 ‘25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추가하는 등 전남도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남도에 광주 효천역 경우를 위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중지와 함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효천역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예타는 진행하고 이후 변경 절차를 밟는 ‘선 예타, 후 노선 변경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지역 노선은 광주시가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광주시의 효천역 경우 개선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올 것을 우려했을 뿐, 반대 한 적은 없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기 연장을 하더라도 중지란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단독으로 국토부에 예타 중지를 요청한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공동 사업 지자체인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예타 중지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입장이 확고하다. 광주시는 예타 중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계획상으로 건설비 일부(2000억원)와 연간 운영비 일부(100억원)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천역을 경우유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지출될 뿐 광주 시민에게는 편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만나지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문을 보내게 됐다”면서 “효천역이 빠진 상태로 예타가 마무리되고, 추후 노선 변경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역,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46km의 복선전철로 예타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 주장처럼 효천역을 추가할 경우 2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폴리’ 빛으로 화려한 변신 K팝 거리 등 5곳에 경관조명...야경 명소로 인기

광주 구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는 광주폴리가 화려한 경관조명 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총장권역 99칸’, ‘광주사람들’, ‘유동성조절’, ‘광주사랑방’과 케이팝(K-POP)거리 ‘투표’ 등 광주폴리 5개 작품에 경관조명 설치를 마무리하고, 31개 작품에 대한 음성해설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총장치안센터 앞에 있는 작품 ‘99칸’과 ACC주변 버스승강장 옆에 자리한 작품 ‘광주사랑방’에 겨울 분위기를 한껏 살린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또 금남공원에 있는 작품 ‘유동성조절’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해 작품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차량 통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케이팝(K-POP)스타거리에는 작품 ‘투표’는 그동안 잠시 멈췄던 스토리보드 기능을 되살리고 특화거리와 연계한 체험관광 콘텐츠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다양한 경관조명으로 조성된 광주폴리가 ‘인증샷’ 명소로 거듭나고, 광주폴리 제5차 추진으로 폴리를 잇는 도심 돌레길이 조성되면 구도심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신활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광주폴리 31개 작품에 대한 ‘음성해설 서비스’도 시작한다.

앞으로 음성해설을 지원하는 ‘큐피커’ 앱과 폴리 안내판에 부착된 QR(QR)코드를 활용해 24시간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MZ세대 흥미 유발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슷품, 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주폴리 인지도 개선과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문화·예술·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폴리시민협의회’ 회의를 열고 광주폴리 추진상황과 폴리 5차 돌레길 구성 및 작품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시민에게 즐거움과 문화적 재충전을 하는 원동력이 돼 상상이 현실이 되는 플랫폼도시 광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가 동구 케이팝(K-POP)스타거리 광주폴리 작품인 ‘투표’에 조명을 입히고, 그동안 잠시 멈췄던 스토리보드 기능을 되살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 청소년 자율공간 10곳 만든다

오늘 시청서 사업설명회...문화·오락·학습 등 무료 이용

광주시가 오는 2026년까지 지역 청소년이 무료로 양질의 문화·오락 체험과 학습·휴식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율공간 10곳을 조성한다.

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자율공간 확충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청소년자율공간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앞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공모사업 참여 조건 ▲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 ▲대상지 선정방법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역 청소년자율공간인 ‘당가동 4번지’의 김

구연 센터장을 초빙해 ‘딩가동’ 공간 조성과 운영 사례에 대한 축적된 경험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청소년자율공간 확충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이 비용부담 없이 양질의 문화·오락 체험과 학습·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10개소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영결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을 위한 자율공간 확충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안착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교육청을 포함한 관계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656억 투입

농기계 임대 사업소 5곳 추가...수급 안정·생산비 절감 추진

전남도가 도내 53개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 사업비 149억원을 확보해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주산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원예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6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등에 임대사업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4일 “채소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18개 핵심사업에 6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부담 135억원을 더하면 모두 791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발작물 기계화 제고, 생산비 절감 및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유통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6대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배추, 무, 대파, 고추의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228억원과 전남도 자체 수급안정 사업비 83억원 등 전체 311억원을 확보했다.

또 농업인의 농작업 중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133억원 등 3개 사업에 149억원을 지원한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비닐벌창이 자생적으로 생분해 돼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10억원,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13억원, 마늘 재해피해 농가 농자재 지원 18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현재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경운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 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
예 능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